



피아니스트 고성준이 오는 14일 금호아트홀에서 '생상스 에튀드 전곡 피아노 리사이틀'을 연다. 사진은 고성준이 미국 콜번 학교 연주회에서 공연하는 장면. <엔이씨 예술기획 제공>

아르페지오, 트릴, 겹음 및 음계와 같은 요소를 능숙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까닭에 '콘서트 에튀드' (연습곡)를 연주회에서 선보이는 것은 쉽지 않다. 리스트의 '조절기교 연습곡', 쇼팽 '연습곡' 등은 대표적인 콘서트 에튀드곡이다.

광주 출신의 전도유망한 학생이 '생상스 에튀드 전곡'을 우리나라에서 초연할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엔이씨 예술기획(대표 박의혁·이하 엔이씨)은 '고성준 생상스 에튀드 전곡 피아노 리사이틀'을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펼친다.

호남예술제 금상 출신으로 현재 광주 예술중(2학년)에 재학 중인 고성준은 오는 9월 미국영재학교 콜번 스쿨에 입학 예정인 예술 동량이다.

고 군은 콜번 스쿨 입학 후 부조니, 반 클라이번 등 주요 콩쿠르에서 수상한 세계적 피아니스트 '파비오 비디니' 스튜디오에 소속될 예정이다. 콜번 스쿨은 1차에서 시대별 4곡의 영상 심사, 2차 라이브 오디션 및 이론시험, 초연 시험 등을 거쳐 입학생을 선발할 만큼 입학 과정이 까다롭기로 알려졌다.

고 군은 "생상스 에튀드는 각양각색의 느낌이 깃들여 있는 곡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 독주회 준비과

14일 '생상스 에튀드 전곡' 초연 무대 광주예술중 2학년...각종 대회서 수상 9월 미국영재학교 콜번 스쿨 입학 예정

정이 지루하지 않았다"며 "한국 초연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있지만, 한편으로 기대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원순을 위한 연습곡인 '생상스 에튀드 Op.135' 등 총 18곡의 연습곡을 연주할 계획이다. 생상스의 에튀드는 19세기에 파리 음악원의 시험곡으로도 쓰일 만큼 고난이도 기교들을 필요로 한다.

'에튀드 Op.111'도 들려준다. '라스팔마스의 종소리', '3번 협주곡의 토카타'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반음계, 메이저 및 마이너, 협주곡의 특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수록곡 중 '반음계의 장3도'는 연이어 장3도의 반음계가 나오는 난도 높은 곡이다. 피아노 협주곡 5번을 베이스로 작곡한 수록곡 '협주곡 5번에 의한 토카타'도 이목을 끈다. 넓은 음역의 아르페지오와 도약 등 다양한 테크닉이 요구된다.

연주회에서 단독으로도 사용되곤 하는 '6개의 연습곡 Op.52'도 관객들을 만난다. '프렐류드', '프렐류드와 푸가'를 비롯해 유니크한 화음 연습에 도움이 되는 '손가락 독립을 위해', '왈츠 형식으로', 2:3 크로스 리듬을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리듬 연습곡'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곡들은 생상스가 연주 테크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총 18곡의 에튀드 중 일부다. 생상스는 자신의 에튀드 곡에 낭만파, 프렐류드와 푸가, 인상주의 등 다양한 작풍을 담아 냈다.

고 군의 스승 박의혁(전 광주대 교수) 대표는 "콜번 스쿨은 올해 세계에서 총 3인, 한국에서 '유일'하게 고성준 피아니스트가 선발될 정도로 문턱이 높은 미국의 영재 학교"라며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생상스 콘서트 에튀드' 전곡을 감상하며 생상스 특유의 작품을 만끽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고 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등에서 수학하며 경험을 쌓아 왔다. 광주예술영재원과정 최우수상, 포아영재콩쿠르(2위, 3위), 한예중 부설 영재교육원 원장상 등을 수상했다. 전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정혜상수'

넘실거리는 풍광 '천태암 구름정원'

나중화 개인전, 25일까지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

곡성 아미산 천태암(天台庵)은 1350년 역사를 간직한 암자다. 해암 율사가 665년(신라 문무왕 5년) 창건한 이후 오롯이 법맥을 이어왔다. 이곳은 조계종 중천조인 길상사 중창을 통해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완성하는 등 고려 불교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던 유서 깊은 고찰이다. 특히 해발 500미터 고지에 자리한 터라 암자 앞에서는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다. 시시각각 펼쳐지는 운해는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명승으로 꼽힌다.

천태암의 다채로운 풍경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오는 25일까지 ACC 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에서 진행중인 이번 전시의 주제는 '천태암 구름정원-나중화 개인전'.

전시장에 들어서면 운해가 넘실거리는 풍광을 비롯해 오랜 법맥의 얼이 깃든 암자의 사계 등을 볼 수 있다. 대표작 '천태암 구름정원', '고해(苦海)에서 화엄(華嚴)

으로, '극락의 계단', '피안(彼岸)의 산사', '시무등등주(是無等等呪)' 등은 산사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깊은 사유의 궤적을 보여준다.

대표작 '천태산 구름정원'은 가을날 암자에서 보게 되는 풍경을 초점화한 작품이다. 운해가 만든 천상의 구름정원은 이곳이 선계인가 속계인가 착각에 빠지게 한다. 구름 위에 드리워진 붉은 단풍나무는 몽환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정취를 자아낸다.

또 다른 작품 '시무등등주(是無等等呪)'는 사찰 앞마당 마루에 앉아 멀리 펼쳐진 무등산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담았다. "지혜로운 무등산한테 물었다. 누가 부처이고 누가 중생인가"라는 물음은 비단 무등산을 넘어 누구에게나 물을 수 있는 현문인 것 같다.

한편 나중화 출신 나중화 작가는 단체전, 개인전에 참여했고 '힐링산행'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번째 데자뷰

13일~7월31일 DJ센터 화해갤러리

그림 동아리 '그림존'이라는 단체가 있다. '그림존'은 '그림 지대' 또는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림존이 김대중컨벤션센터 화해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오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리는 전시 주제는 'The 1st Dejavu'.

첫 번째 데자뷰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전시는 기시감, 연상 등을 모티브로 펼쳐진다. 류하연, 박수인, 박제인, 오경진, 옥달루, 이진하, 조운심 등 모두 8명의 작가가 출품했다. 최재영 작가에게 그림을 배웠던 제자들로 화실에서의 인연이 전시로 이어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 작가의 'Fantasy-10' 작품도 만날 수 있다. 10월의 붉게 물든 나무와 단풍빛과는 무관한 연초록 나무의 대비는 동화적인 감성을 환기한다. 대비되는 두 나무의 '색' 사이를 흘러가듯 달리는 자동차는 양중맞은 장난감처럼 비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박제인 작가의 'Harmony-01'은 숲과 꽃그늘 속에 가리워진 고양이와 모습을 초점화했다. 자연의 일부라 해도 될 만큼 고양이 모습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어느 편이 고양이이고, 어느 편이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오경진 작가의 '이글림'은 황량한 들뜬에 드리워진 철로를 배경으로 노을이 내리는 풍경을 구현했다. 신



조운심 작 '계절의 변화'

비하면서도 몽환적인 풍경은 보는 이에게 철로를 따라 끝없이 걸어가고픈 충동을 부채질한다.

조운심 작가의 '계절의 변화'는 색감을 통해 미묘한 시간의 흐름을 포착했다.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졌을 푸른 잎들이 저마다 다른 색으로 바뀌어가는 장면은 우리네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한편 최재영 작가는 "그림존에는 전문작가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다.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기에 함께 그림을 선보이게 됐다"며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미술을 매개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 운영 15~16일 미디어아트 예술가 대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오는 15일~16일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에서 미디어 아트 관련 창작자-예술가를 대상으로 'ACC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ACC가 창작자-예술가의 첨단 기술 활용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5~11월까지 운영하는 ACC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 중 하나다.

두 번째 문화기술 워크숍인 이번 교육은 '사운드'의 기본 지식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사운드 A to Z'이다. 교육에서는 창작자-예술가들이 작품의 사운드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운드 매체와 협업 시 요구되는 기초 지식과 유용한 팁도 알려준다. 사운드는 그래픽이나 영상물에 결합돼 예술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매체이며, 터치디자이너 등 여러 미디어 틀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교육은 선발을 통해 진행되며, 교육비는 2만원이다. 선발된 참여자 중 광주지역 외 거주자에게는 숙소가 지원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이번 전문인 역량 과정은 창작자, 예술가들로 하여금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의미있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독립영화관 영화 행사 '풍성'

애니메이션·오컬트 단편 등 순회상영회...관객과의 만남도

광주독립영화관(관장한재섭)이 순회상영회, 관객과의 만남(GV) 행사 등 다채로운 영화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먼저 기획된 '인디피크닉 2024 In 광주'는 오는 15~16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대상을 받은 서세롬 작 '스위밍' 등 수상작을 테마별로 엮어 소개하는 상영회다.

상영회에서는 '판타스틱 유니버스'라는 주제로 네 편의 단편 '스위밍', '홀', '다리 밑 도영', '가슴이 터질 것 같아!'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5일(오후 5시 40분), 16일(오후 1시) 진행.

'기억해? 무엇이든'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상영회도 눈길을 끈다. 단편 '유령극', 'X의 저주'를 비롯해 '기억의 집', '작두'로 15일(오후 7시 30분), 16일(오후 3시) 관객들을 만난다.

한편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생에 대해 그린 다큐멘터리 '생츄어리' GV(관객과의 만남) 행사는 오는 18일(오후 7시) 진행한다. 영화 상영 후 왕민철 감독이 자리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영화는 2024년 현재 국내에는 생츄어리



'생츄어리' 스틸컷. <광주독립영화관 제공>

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을 지적한다. '생츄어리'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뜻한다.

작품은 청주동물원을 야생동물 보호 시설로 바꾸고 싶은 수의사 김정호와 동물복지 활동가 최태규를 조점화한다. 지난해 제20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한국경제부문 우수상, 관객심사단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순회상영회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수상작, 애니메이션, 오컬트 단편 등 화제의 독립 영화들로 라인업을 구성했다"며 "감독과 씨네 토크를 진행하는 GV 행사 등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